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4화 코살라의 대왕과 태자



이리하여 부처님을 위한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건물의 이름을 '기원정사(祇園精舍)'라 하는데 그 본래의 이름은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었다.

이 말은 제타 태자의 '제타(Jeta)'를 '기타(祇陀)'로 쓰고 그가 목재를 주었다하여 '수(樹) 자를 썼다. 또 수닷타가 의지할 데 없는 자(Vanatha)에게 먹을 것을 주다(Pindika)란 뜻을 번역하여 '급고독(給孤獨)'이라 했던 것이다.

인도의 말로는 '제타바나비하라(Jeta-Vananatha-pindika-rama)'라고 하여 이 경우 한문자의 뜻풀이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긴 이름이 읽고 발음하기에 어려워 본서는 그냥 '기원정사'로 부르기로 한다.

마침내 수닷타의 정성어린 노력과, 건축을 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파견된 사리풋타(Sariputra,舍利弗)의 독려에 의하

여 불교사상 두 번째의 절인 기원정사(祇園精舍)가 완성되었다. 제타 태자가 제공한 목재를 마음껏 이용한 아름다운 사원으로서 그 중앙에 붓다를 위하여 향각(香閣)을 세우고, 양옆으로 열여섯 개의 승방(僧房) 그리고 육십여 채에 달하는 전당과 소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궁전을 방불케 하였다. 이제 약속한대로 부처님이 와주시기만 하면 수닷타의 소원은 성취되는 것이다.

기다리던 기원정사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붓다는 수닷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 천명이 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죽림정사를 떠나 기원정사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올랐다. 그 여정(旅程)은 수 십일이 걸렸다. 그러나 수닷타가 그의 조칙을 이용하여 지나는 길목마다 미리 준비를 용의주도

하게 해주었기에 큰 고생 없이 무사히 기원정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붓다 일행이 도착하는 날 그동안 정사의 건축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제타 태자는 자랑스럽게 그의 부왕 프라세나짓(Prasenajit)왕을 모시고 기원정사의 주인이 되실 붓다를 마중 나와 붓다의 오심을 크게 환영하였다. 그러나 프라세나짓왕은 아직까지 불교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붓다시여, 먼 길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아무쪼록 이곳에서 편히 계시면서 저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코살라의 대왕님과 태자님이 이렇게 마중을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태자님께선 정사(精舍)의 역사에 많은 도움을 주시었다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위에 있는 몸이지만 때때로 명망 높은 브라만을 불러 수행을 해도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붓다께서는 아직 젊은 나이에 더구나 브라만도 아니면서 어떻게 성도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왕이시여, 사람들이 흔히 젊고 작은 것을 업신여기는 그릇된 소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엔 결코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으니 그것은 왕자와 작은 용, 조그마한 불씨, 그리고 어린 중입니다."

왕자는 작지만 장차 왕의 권력을 쥐게 되고, 용의 새끼도 언젠가는 큰 용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 작은 불씨도 산과 마을을 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마음을 청정하게 가다듬고 잘 수행하면 성도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귀천, 그리고 높고 젊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국왕인 나를 두려워하여 단 한사람도 나의 잘못을 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붓다께서 나에게 바른 말을 하였고, 그렇다면 국왕인 내가 어떻게 행함이 옳은가를 솔직히 가르쳐 주십시오."

"국왕은 백성들 사랑하기를 오직 외아들을 아끼듯 해야 합니다. 절대로 권위로 억압해서는 안 되고 하찮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또, 절대로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괴로운 자를 돕고 슬퍼하는 자는 위로하며 희망을 잃은 자를 구하십시오. 왕의 지위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 것이며 아부하는 자의 말에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나무에는 새들이 모여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욕이 타는 곳에 이성이 깃들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정욕이 타는 동안에는 냉철한 판단을 잃게 되고 나라의 이해를 생각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맙니다. 대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행하며 바르게 정진하여 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밝은 곳으로부터 어둠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 반대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현명한 자는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 드디어 찬란한 광명의 세계에 들어서 자기의 생명도 구하고 타인의 생명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상하여 고뇌로 가득 찬 것입니다. 행복을 결코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곧고 올바른 마음을 본으로 삼아 백성들의 행복을 해치지 말며 백성들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토대를 닦아 주십시오. 그것이 왕도(王道)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이곳 기원정사에서 보낼 것이니 시간 나시는 대로 자주 오셔서 그동안 내가 깨달은 여러 가지들 함께 생각해 보면 이로울 것입니다. 특히 이번의 우안거(雨安居)중에는 바로 이곳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므로, 대왕께서 나의 법륜을 들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어떤 브라만의 말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머리와 가슴이 맑아지고 무언가 환하게 밝아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제타태자도 붓다의 설법을 함께 들었으므로 훗날 그가 왕위에 올라 다스릴 때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